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한국사 B책형
 박문각 공무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선우쌤 총평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는 2017년 서울시 7급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시대사 출제 범위를 보면 전근대사 14문제, 근현대사 6문제였고, 단원별로는 정치 13문제, 사회 1문제, 경제 1문제, 문화 5문제가 출제되었다. 선사시대와 초기 국가관련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서울시 7급 문제 역시 다른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사료형 문제(8문항)와 박스 지문 제시형 문제(5문항)가 많이 출제되었고 낯선 사료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사료문제의 경우 사료의 내용을 파악한 이후 다시 그 사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지문은 현대사 민주화운동 순서 배열 문제 중 '교련 반대 시위로 인한 위수령발동' 지문과 일제 민족운동 시기 순서 배열 문제에서 '경성 고무 공장 여성노동자의 아사동맹' 지문이었다. 그밖에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된 주제들이었으나 꼼꼼하게 역사적 지식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였다.

특히 조소앙(2017년 지방직 9급 출제), 자장과 신간회(2017년 추가 지방직 9급 출제) 문제의 경우는 2017년 문제가 조금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심지어 고려 경제 관련 문제에서 '개경, 서경 등에 시전 설치' 지문은 2017년 하반기 국가직 9급에서 논란이 되었던 지문이었다.

이제 곧 있을 국가직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17년 하반기 시험 문제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마무리를 하되,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올수록 공부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9급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도 좋은 마무리 방법이 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18년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시대별 분석

역사인식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고대사회	4	자장(선덕여왕 사료제시) 장수왕(광개토태왕비 사료 제시) 진성여왕 이후 사건(적고적 사료 제시)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 사이의 사건순서(사료 제시)			
중세사회	2	무신집권기			후기 역사서 순서
근세사회	5	과거제도	노비	경제	훈일강리역대국도 이황
근대사회 태동	2	숙종(기사환국 관련 사료)			노론의 저서(홍대용)
근대사회 전개	1	을사조약 관련 사건 (민영환유서 제시)			
민족독립운동기	3	민족운동 순서 조소앙 신간회			
현대사회	2	1960~1970년대 민주화운동 순서 해방공간의 주요사건 순서			
통합	1				유네스코세계기록 문화유산

문 1.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신인(神人)이 말하였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가)(가)(이) 다시 물어보았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이로운 일을 해야합니까?” 신인이 답했다. “황룡사의 호법용(護法龍)은 나의 맏아들입니다. 범왕(梵王)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 9층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웃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중략)”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가)는(은)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승복과 폐백 등을 가지고 와 탑을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 ① 세속오계를 통해 당시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르쳤다.
- ②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하며 화쟁을 주장하였다.
- ③ 대국통(大國統)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 ④ 질병 등 현실적 재난 구제에 치중하는 밀교를 전파하였다.

☞ 답 ③

<정답 찾기> 제시문은 『삼국유사』의 황룡사 9층탑 건립과 관련된 기록이다. (가)는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승려 자장이다. ③ 당나라에 유학중이던 자장이 귀국하자 선덕여왕은 분황사에 머무르게 하고 대국통(大國統)으로 임명하였다. <선지 분석> ① 원광의 세속 5계는 유교·불교 및 고유 사상이 융합된 것으로서 화랑도의 본질이며, 그 정신은 신라 국민의 실천 윤리로 확대되어 삼국 통일의 추진력이 되었다. ② 원효는 화쟁의 논리에 따라 중관과의 부정론과 유식과의 긍정론을 다 같이 비판하였다. ④ 밀교는 신라 후기 민간 사회에서 주문으로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 구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안흥과 명랑과 같은 승려에 의해 전파되었다.

문 2. <보기>의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민지의 『본조편년강목』
 ㄴ. 이제현의 『사략』
 ㄷ. 원부, 허공의 『고금록』
 ㄹ. 이승휴의 『제왕운기』

- ① ㄱ - ㄹ - ㄴ - ㄷ
- ② ㄹ - ㄱ - ㄴ - ㄷ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ㄷ - ㄱ - ㄴ

☞ 답 ③

<정답 찾기> ㄷ. 『고금록』(1284, 충렬왕 10년) ㄹ. 『제왕운기』(1287년, 충렬왕 13년) ㄱ. 『본조편년강목』(1317, 충숙왕 4년) ㄴ. 『사략』(1357, 공민왕 6년)

문 3.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과인 생원과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 ② 생원과나 진사과의 초시에는 지역별 할당 인원을 정했지만, 문과의 경우는 지역 할당 없이 초시, 복시 모두 시험 성적순으로 뽑았다.
- ③ 『경국대전』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 ④ 문과 합격자에게는 합격 증서에 해당하는 백패를 수여했다.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한국사 B책형
 박문각 공무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 답 ③

<정답 찾기> ③ 문과의 경우 반역 죄인과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은 응시가 불가능하였다.

<선지 분석> ①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소과(생진과)를 거쳐 성균관에 입학한 후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② 문과는 식년시의 경우 초시(初試)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시(覆試)에서 33명을 선발한 다음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殿試)에서 갑과(3명)·을과(7명)·병과(23명)로 등위를 결정하였다.

④ 문과 합격자에게는 홍패가 지급되었다. 소과와 잡과 합격자에게 백패를 수여했다.

문 4. <보기>의 1960~1970년대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YH여성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ㄴ.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ㄷ. 교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ㄹ.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① ㄴ - ㄱ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ㄴ - ㄷ - ㄹ - ㄱ

☞ 답 ④

<정답 찾기> ㄴ. 삼선개헌 반대 투쟁(1969) ⇨ ㄷ. 교련 반대 시위(1971) ⇨

ㄹ. 언론 자유 수호 투쟁(1974) ⇨ ㄱ. YH 무역 사건(1979)

문 5. <보기>의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 운동은?

<보기>

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 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①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②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③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④ 충남 정산에서 전 참관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켰다.

☞ 답 ④

<정답 찾기> 지문은 을사조약(1905) 당시 민영환의 유서이다.

④ 을사의병(1905)

<선지 분석> ① 동학농민운동(1894), ② 정미의병(1907) 당시 박승환의 유서

③ 을미의병(1895)

문 6.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하여 전개된 다음의 민족운동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①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을 채택하였다.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아사동맹'을 맺으며 파업하였다.

③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하였다.

④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의 행차에 폭탄을 던졌다.

☞ 답 ④

<정답 찾기> ④ 이봉창의 일왕 저격 - 1932년

<선지 분석>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차 개헌 - 1925년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아사동맹' - 1923년

③ 「조선혁명선언」 작성 - 1923년

문 7. <보기 1>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1402년(태종 2)에 의정부 정승 이무와 김사형이 발의하여 이회가 제작하고, 권근이 발문을 쓴 세계지도이다.

<보기 2>

ㄱ. 원나라 세계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ㄴ.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였고, 중국과 한국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

ㄷ.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도에 빠져 있다.

ㄹ. 후대의 모사본 가운데 하나를 일본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ㅁ. 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회는 이보다 앞서 『동국지도』도 만든 바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 답 ①

<정답 찾기> <보기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이다.

ㄱ.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과 일본의 지도를 바탕으로 태종 때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로, 원나라 이택민의 「성교광피도(聖教廣被圖)」와 승려 청준의 「혼일강리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이다.

ㄴ. 「혼일강리역대국도」에는 중국과 조선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다.

ㄷ. 「혼일강리역대국도」의 원본은 전하여지는 것이 없고, 사본이 일본 류코쿠 대학 도서관에 전하여지고 있다.

<선지 분석> ㄷ. 「혼일강리역대국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는 묘사되어 있으나 아메리카 대륙은 존재하지 않는다.

ㄹ. 「동국지도」는 세조 때 양성지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회는 「혼일강리역대국도」의 제작 직전에 조선 최초의 전국 지도인 「팔도도」를 만든 바 있다.

문 8. <보기>의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일찍이 (가)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에 이르러 여관에서 만주인 영자평이란 소년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는데,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가)가 오랫동안 초래(草萊)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 지방 영희(英禧)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 가운데 고구려가 중국 토지를 침탈했다는 자취들이 들어있었으므로, 중국인들이 그것을 칼과 도끼로 쪼아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인들이 (가)를(을)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탁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들은 닦아 없어지거나 이지러진 부분을 석회로 때어 받았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인식할 수 없었던 자취가 도리어 생겨나 참된 사실은 삭제되고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① 북연(北燕) 왕인 풍홍을 둘러싸고 북위 및 송과 갈등을 빚었다.

② 거란족 비려의 3개 부락을 격파하고 소말양을 노획하였다.

③ 당나라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도(五斗米道)도 유입되었다.

④ 이문진에게 명하여 『유기』를 『신집』 5권으로 개수하였다.

☞ 답 ①

<정답 찾기> (가)는 광개토태왕릉비로 장수왕 2년(414)에 제작되었다.

① 북연의 몰락 및 갈등(434~435, 장수왕 23~24년)

<선지 분석> ② 비려(거란) 정복(395, 광개토 대왕 5년)

③ 오두미도 유입 - 고구려 말 보장왕 대

④ 『신집』(600, 영양왕)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 한국사 B책형
 박문각 공무원 한국사 대표강사 선우빈

문 9. <보기>의 (갑)은 조선시대 신분층에 대한 설명이다. (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무릇 (갑)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몰래 사고팔았을 때는 관청에서 (갑)과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값이 저화 4천 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 장이다.
 『경국대전』

- ①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 ② 부모 모두가 (갑)일 경우에만 그 자녀도 (갑) 신분이 되었다.
- ③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며 신공(身貢)을 바치기도 했다.
- ④ 국가에 소속된 경우 관청의 잡무 처리와 물품 제작에 참여했다.

☞ 답 ②

<정답 찾기> (갑)은 노비이다.

② 노비의 신분은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노비라도 그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선지 분석> ① 노비는 일종의 재산처럼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③ 관부나 주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생활 기반을 영위하는 외거노비는 일정한 신역을 질 의무가 있었다.

④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에 대한 설명이다.

문 10.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사상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②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 ③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
- ④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을 반대하였다.

☞ 답 ③

<정답 찾기> ③ 조소앙은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전제하면서, 보통선거제·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제·국비 의무 학제를 실행해 각각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선지 분석> ① 삼균주의는 쑨원의 삼민주의, 캉유웨이의 대동사상, 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통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생활이라는 완전 균등을 대전제로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④ 조소앙은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전쟁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 침탈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보았다.

문 11. <보기>와 같은 사상 체계를 지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내세워 이(理)는 착하고 보편적이지만, 기(氣)는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어 비천한 것으로 보았다.
- 4단(四端)은 이에서 발생하고, 7정(七情)은 기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① 주자의 서찰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여 일본 주자학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② 선배학자 이언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설(主理說)을 수립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현광 등 영남학자들에게서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국왕과 선비가 지켜야할 왕도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집요』를 지었다.

☞ 답 ④

<정답 찾기> <보기>는 이황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이는 임금에게 『성학집요』를 지어 올려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군주 개조론을 주장하였다.

<선지 분석> ① 이황은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지어 주자의 이기론을 발전시켰다.

② 주리 철학은 향촌에서 중소 지주적 경제 기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전시켜 나간 것은 선구자는 이언적, 대성자는 이황이다.

③ 이황의 사상은 김성일, 유성룡 등으로 이어져서 영남학파를 형성하였다.

문 12. 정치적 입장이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의 주요 내용을 바르게 소개한 것은?

- ①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고정관념을 상대적 논법으로 비판했다.
- ②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와 토지재분배를 주장했다.
- ③ 침성촌에 은거하면서 전문한 내용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했다.
- ④ 야사 400여 종을 참고해 조선 정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 답 ①

<정답 찾기> 조선 후기 노론 일부 소장파 안에서 중상학과 실학자들이 출현되었다.

① 노론 집안이었던 중상학과 실학자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지구의 1일 1회전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선지 분석> ② 중농학과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다. 유형원은 농촌 문제의 핵심이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균전론을 주장하여 관리와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중농학과 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이익은 천지·만물·경사·인사·시문의 4개 부분으로 기술한 백과사전식 저서인 『성호사설』을 편찬하였다.

④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보기>의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보기>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② 농촌진흥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③ 자치운동의 확산을 경계하였다.
- ④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동의를 얻었다.

☞ 답 ②

<정답 찾기> <보기>는 신간회(1927~1931) 창립 당시의 강령이다.

② 농촌 진흥 운동은 조선 총독부가 소작 쟁의를 막기 위한 교활한 회유책으로 1932년부터 실시되었다.

문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적들이 나라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 ① 대구화상이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원종과 예노가 난을 일으켰다.
- ③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쳤다.
- ④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 답 ④

<정답 찾기> <보기>는 진성 여왕 때 발생한 적고적의 난(896, 진성여왕 10년)이다.
 ④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901년 신라 효공왕 때이다.
 <선지 분석> ① 진성 여왕 때의 대구 화상과 각간 위홍은 역대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이란 향가집을 편찬하였다(888, 진성여왕 2년).
 ② 진성 여왕 때 상주(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 진성여왕 3년)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③ 최치원은 진성 여왕 때 개혁을 요구하는 시무 10조를 지어 올렸다(894, 진성여왕 8년).

문 15. <보기>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왕대의 일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후궁이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 ①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충돌이 일어나자, 청의 요구에 따라 수 백명의 조총 부대를 영고탑(지금의 지린성)에 파견하였다.
- ②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국왕 호위와 수도방위의 핵심 군영 중 하나인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 ③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출몰하는 왜인을 쫓아내고 일본 당국과 담판하여 그곳이 우리 영토임을 승인받았다.
- ④ 삼남지방에 대한 양전 사업이 완료되었고, 세종 때 설치했다가 폐지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였다.

☞ 답 ①

<정답 찾기> <보기>는 기사환국(1689, 숙종 15년)에 대한 설명이다.
 ① 나선 정벌(1654-1658, 효종 5년-효종 9년)
 <선지 분석> ② 금위영 설치(1682, 숙종 8년)
 ③ 조선 숙종 때 일본 어민이 독도를 자주 침범하자 동래 어민 안용복이 이들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였다(1696).
 ④ 조선 숙종 때 4군(자성·무창·우예·여연)의 일부를 복설하였다.

문 16. 고려 무신정권기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위충은 의종 복위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했다.
- ② 산발적이던 민란은 김사미, 효심의 봉기를 계기로 연대하였다.
- ③ 최충헌은 명종을 폐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차례로 세웠다.
- ④ 최이의 처가 죽자 왕후처럼 장례를 치렀다.

☞ 답 ②

<정답 찾기> ① 의종의 복위를 꾀한 사건은 김보당의 난(1173, 계사의 난)이다.

문 17. 2018년 현재까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이 아닌 기록물은?

- ①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일지 형식으로 쓴 기록
- ②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기록한 기행문
- ③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
- ④ 조선왕실 주요 행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넣은 책

☞ 답 ②

<정답 찾기> ② 『열하일기』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지 않았다.
 <선지 분석> ① 승정원 일기, ③ 유교책판, ④ 조선왕조 의궤는 모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다.

문 18. 고려시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중이는 질기고 반질거려 등피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 ② 삼한통보, 해동중보, 건원중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다.
- ③ 개경, 서경에 상설 점포인 시전이 있었다.
- ④ 서리, 향리, 군인, 악공은 수조지를 받았다.

☞ 답 ②

<정답 찾기> ②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으로 성종 때 주조된 건원중보는 유통에는 실패하였다. 숙종 때에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점이나 주점 등 일부 관영 상점에서만 화폐를 사용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문 19. <보기 1>과 <보기 2>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7월 9일 김유신 등이 황산 들판으로 진군하였다. 백제 장군 계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 군대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 유신 등이 병사를 세 길로 나누어 네 번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장수와 병졸들의 힘이 다하자, 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에게 말하였다. “신하에게는 충성만 한 것이 없고, 자식에게는 효도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다하게 된다.” 반굴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곧장 적진에 뛰어들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보기 2>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연정토 및 함께 온 관리 24명에게 의복과 식량과 집을 주고 서울과 주(州)·부(府)에 안주시켰다. 12성 중 8성은 온전했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 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 ② 김춘추가 당에 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 ③ 당이 신라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 ④ 김도잠이 안승을 받들고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 답 ③

<정답 찾기> <보기 1>은 백제의 멸망[계백의 황산벌 전투(660)], <보기 2>는 고구려의 멸망(668)에 대한 사료이다.
 ③ 계림 도독부 설치(경주, 663)
 <선지 분석> ① 연개소문 실권 장악[보장왕 용립(642)]
 ② 나 당 동맹 체결(648)
 ④ 고구려 부흥 운동(고구려 멸망 이후)

문 20. <보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 ㄱ.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상들이 회의하였다.
- ㄴ. 제주도 파병과 정부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 ㄷ.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 ㄹ. 좌우의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ㅁ. 평양에서 남북의 정치,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였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ㄷ-ㄹ-ㅁ-ㄴ
- ③ ㄱ-ㄹ-ㅁ-ㄴ-ㄷ
- ④ ㄱ-ㅁ-ㄴ-ㄷ-ㄹ

☞ 답 ③

<정답 찾기> ㄱ. 모스크바 3상 회담(1945. 12.) ⇨ ㄹ. 좌우 합작 운동(1946. 7. ~ 1947.) ⇨ ㅁ. 남북 협상(1948. 4.) ⇨ ㄴ. 여수 순천 10 19 반란사건(1948. 10.) ⇨ ㄷ. 김구 암살(1949)